

에세이 제목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문화 주체로의 발전
제출학생 학과	영어영문학과
<p> 인간은 일생동안 수많은 대중문화 현상들을 경험한다. 문화는 삶 속에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며, 조금씩 그 형태를 바꾸며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며 대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10대의 청소년기에 즐겼던 대중문화, 20대 때 좋아했던 대중문화,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바라보는 대중문화는 제각기 다를 것이다. 때로는 특정한 문화에 크게 열광을 하고, 때로는 거부감을 느끼며 그것이 왜 대중문화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인간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없이 거치며 삶 속에 스며든 문화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들이 왜 생겨났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며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나 역시 10대 때부터 영화, 아이돌 등의 대중문화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다. 이를 위해 돈과 시간도 많이 썼고, 좋아하는 마음도 컸지만 근본적인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어렸을 때에는 피상적인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파헤쳐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Y 교수님의 <현대문화이론> 수업을 듣게 되었다. </p> <p> 현대문화이론 강의에서는 하위문화, 응시문화, 페미니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등 한 번쯤 들어봤던 문화의 개념들에 대해서 수업했다. 문화이론의 의미와 발생기원, 작동체계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배우면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예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 빗대어 설명해주셨고 동영상과 이미지 등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다.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이 접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볼만한 기회가 마땅치 않은 것이 ‘대중문화’라고 생각하는데, Y 교수님께서 이를 꼼꼼히 다뤄주셔서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 특히, 사이버캠퍼스 9주차에 업로드된 ‘문화자본의 정치학’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 가장 인상깊었다. 프랑스의 학자 부르디외(P. Bourdieu)가 주장한 ‘아비투스’와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배웠다. 아비투스는 음악, 미술적 취향, 말하는 태도, 패션 취향 등 모든 것들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정유형의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지속적이며 변화 가능한 성향의 체계이다. 특정 계급이 그들의 생존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영구적이면서도 변동 가능한 성향체계인 아비투스가 만들어진다. 즉, 아비투스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결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은 자신이 속한 계급과 교육수준에 </p>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공통된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급전체의 취향으로도 볼 수 있다. 문화적 실천이 어떻게 ‘계급의 위계화’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단순히 경제적인 자본만이 계급을 위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본’도 계급의 위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타인을 볼 때도 취향이 비슷한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위의 이론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관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경험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현대문화이론의 수업 방식이 가장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수업들은 학기 내내 사이버캠퍼스에서 녹화강의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매 시간 zoom을 이용한 화상강의로 진행되었다. 100% 녹화강의로만 수업을 하는 경우 솔직히 말해, 출석 버튼만 눌러놓고 강의수강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강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매번 zoom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다른 학우들의 얼굴을 매 시간 마주 봐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인터넷 연결 상의 문제가 생겨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현대문화이론 수업은 녹화강의와 과제물 제출, 사이버캠퍼스 내에서의 토론, 그리고 zoom을 통한 화상토론이 적절히 섞여서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 중 하나에 교수님이 수업하신 문화이론들 중 한 가지를 적용시켜서 에세이를 쓰고 이를 과제물로 제출하였다. 교수님께서 그 중 몇 개의 에세이를 대표로 선정해서 사이버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주셨고, 학생들은 이를 읽고 2개의 글을 선택하여 소감과 피드백을 남기면 된다. 원문작성자는 피드백에 대해서 코멘트로 응수할 수 있고 따라서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 다음 시간에 zoom에 질문답변에 대한 정리 및 추가 질문답변이 이루어졌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다른 화상강의 시간에도 질문답변을 많이 진행해 보았는데, zoom 강의에서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곧장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개념에 대한 내용과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었다. 또한 토론 시에도 답론의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 말꼬리잡기처럼 질답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이런 경우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문화이론 수업에서는 1주일 이상의 여유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 학우들의 글을 여러 번 읽고, 질문도 체크한 다음 이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또한 학우들의 글을 읽으며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헷갈

리는 부분을 사이버캠퍼스에 올라와있는 녹화강의를 다시 들으며 체크할 수 있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정확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기말고사 공부를 미리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이었다. 따라서 정식 토론시간에 보다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자유게시판에서만 토론을 끝낸 것이 아니라, zoom을 통해 학우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소통하며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좋았다. 글과 댓글로만 질문답변을 하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었고, 어렵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준비해가고 공부해간 질문답변 외에 즉석 토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심장 쏘리는 토론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학우들이 작성한 롯데 자이언츠의 팬덤문화가 한국 프로야구의 열기를 어떻게 재생산하며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에세이,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제한시키는 ‘응시문화’를 게임 캐릭터를 통해 설명한 에세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mbti(성격유형검사) 열풍을 청년문화의 관점으로 설명한 에세이 등을 읽으며 여러 가지 문화이론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우들이 각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유행들을 주제로 삼아 이론에 적용시킨 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 유행을 이러한 이론에 적용시킬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좁은 사고의 틀을 깨준 글이 많았다. 항상 내 글을 써서 과제물로 내기에만 급급했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나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같은 개념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어서 색다르고 흥미로웠다.

예전에 “모든 사람이 기존의 문화와 관습을 충실히 따르고 순응하기만 한다면 문화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문화를 공부한다면, 문화의 자연화를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깊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되뇌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현대문화이론 수업 역시 내가 평소 생각해왔던 부분을 꼭 짚어주었다. “대중문화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동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정서의 창출을 통해 지배 권력에 도전하고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역량을 키운다.”라는 강의목표처럼 이 수업을 통해서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 김형곤, 「미디어와 문화」